

성인 장애인의 자기효능감 변화 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 대인관계역량 차이

연은모¹, 최효식^{2*}

¹영남대학교 교양학부, ²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Trajectories in Self-Efficacy with their Life Satisfact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Adults with Disabilities

Eun Mo Yeon¹, Hyo-Sik Choi^{2*}

¹College of Basic Studies, Yeungnam University

²Department of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약 본 연구에서는 만 25세 이상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4년 동안의 자기효능감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삶의 만족도, 대인관계역량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의 1차(2016년)~4차(2019년)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ing)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성인 장애인의 자기효능감 변화 궤적에 따라 3개 잠재계층(상수준 증가형, 중수준 증가형, 하수준 무변화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3개 잠재계층에 따라 삶의 만족도 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수준 증가형 집단, 중수준 증가형 집단, 하수준 무변화형 집단 순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3개 잠재계층에 따라 4년 동안의 대인관계역량 변화 패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준 증가형 집단, 중수준 증가형 집단은 대인관계역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하수준 무변화형 집단은 대인관계역량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킴으로써 성인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대인관계역량을 향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groups depending on the four years of changing trajectories in self-efficacy and its relationship with life satisfact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adults with disabilities who were aged above 25. The 1st to 4th year of the second wave from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 was used to identify the groups and explore their relationship with life satisfact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through growth mixture modeling. The results identified three latent classes according to changing trajectories in self-efficacy: a 'high level-increasing group', an 'average level-increasing group', and a 'low level-stable group'. These three groups showed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life satisfact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For example, life satisfaction for groups decreased from the 'high level-increasing group' to the 'low level-stable group'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increased in both 'high level-increasing group' and 'average level-increasing group', whereas it was stabilized in the 'low level-stable group'.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life satisfact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adults with disabilities are associated with their self-efficacy.

Keywords : Adults with Disabilities, Self-Efficacy, Life Satisfaction, Interpersonal Competence, Growth Mixture Modeling

*Corresponding Author : Hyo-Sik Choi(Chuncheon National Univ. of Education)

email: s970218@cnu.ac.kr

Received January 4, 2021

Accepted April 2, 2021

Revised January 25, 2021

Published April 30,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의미하는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인지, 동기, 정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1-2]. 특히 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다는 개인의 기대와 신념을 의미하는 자기효능감은 장애인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3]. 장애인의 삶 전반에서 자기효능감의 중요성 때문에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이유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장애인의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는 횡단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이 어떻게 변화하고, 변화 양상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확인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자기효능감은 행동 변화를 예측하는 중요 요인이며[4], 자기효능감의 변화는 건강 관련 행동 및 상태의 변화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5]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이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의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지만[6], 종단적 관점에서 자기효능감의 변화 양상에 따라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셋째, 장애인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역량 간에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지만[7],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대인관계역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장혼합모형에 기초하여 성인 장애인의 자기효능감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자기효능감 변화 양상과 대인관계역량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자기효능감은 인지, 동기, 정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삶의 기능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4, 8]. Bandura(1982)에 따르면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의 수준, 문제적 행동의 자기조절, 성취추구, 내재적 흥미 등을 설명할 수 있다[4].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삶의 과정에서 직면하는 도전 상황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역경을 극복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느끼며, 부정적 정서를 더 적게 느낄 확률이 높다[9].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삶에 대한 긍정적 조망을 하는 경향성이 있으며, 이에 더 큰 행복감 및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11]. 자기효능감은 긍정적으로 사고할지, 비관적으로 사고할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12]. 높은 자기효능감은 도전적이고, 힘든 상황에

서 자신감 상실을 보호할 뿐 아니라, 우울한 생각을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9]. 척수손상장애인[6], 임금근로장애인[13], 산업재해요양 이후 원직장복귀자[14], 만성통증을 겪는 청소년[15], 암 환자[16]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대장암 진단 후 2년 동안의 자기효능감 변화 양상을 확인한 종단 연구에 따르면[28] 자기효능감 변화 양상은 매우 높은 자신감이 있는 집단, 자신감이 있는 집단, 중간 수준의 자신감이 있는 집단, 낮은 수준의 자신감이 있는 집단으로 구분되며, 낮은 자기효능감은 낮은 긍정성 및 높은 부정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기효능감은 대인관계역량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17]. 높은 자기효능감은 대인 간 의사소통을 증진하며[18], 낮은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증폭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9].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대인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7],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자기효능감이 대인관계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7].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낯선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두려워하지 않고[20], 다양한 상황 및 문제 해결 과정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더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1.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만 25세 이상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4년 동안의 자기효능감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자기효능감 변화 양상과 삶의 만족도, 대인관계역량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장애인의 자기효능감 변화 양상은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가?
- 2) 장애인의 자기효능감 변화 양상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 3) 장애인의 자기효능감 변화 양상에 따라 대인관계역량의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의 1차(2016년)~4차(2019년)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만 25세 이상의 성인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21].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

감, 대인관계의 4개 시점 중 적어도 두 번 이상 응답한 사례, 4차(2019년) 조사의 삶의 만족도 응답 사례가 있는 2,939명이 연구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2.2 연구 도구

2.2.1 자기효능감

성인 장애인의 자기효능감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1차(2016년)~4차(2019년) 4개 시점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동일한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유저가이드에 따르면 본 척도는 Lee, Schwarzer, Jerusalem(1994)[27]에 의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것이다. 4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로 응답했으며, 문항은 '내 재능 덕분에 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고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1].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1차 $\alpha=.957$, 2차 $\alpha=.954$, 3차 $\alpha=.950$, 4차 $\alpha=.943$ 이다.

2.2.2 대인관계역량

성인 장애인의 자기효능감 변화 양상에 따라 대인관계 변화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의 1차(2016년)~4차(2019년) 4개 시점의 대인관계를 측정하는 동일한 7문항을 사용하였다. 4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로 응답했으며, 문항은 '친구와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1].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1차 $\alpha=.914$, 2차 $\alpha=.905$, 3차 $\alpha=.913$, 4차 $\alpha=.908$ 이다.

2.2.3 삶의 만족도

성인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4차(2019년) 자료의 일상생활 만족도를 측정하는 6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8문항 중 결측치가 많은 '하고 있는 일', '결혼생활' 관련 2문항을 제외한 6문항을 활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1: 매우 불만족 ~ 5: 매우 만족)로 응답했으며, 가족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살고 있는 곳, 요즘 건강상태, 한 달 수입(또는 용돈), 여가활동과 관련된 만족도를 확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21].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alpha=.840$ 이다.

2.3 분석 방법

성인 장애인의 자기효능감 변화 양상을 유형화하기 위해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확인된 자기효능감 잠재계층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BCH 방법(BCH method)을 활용하였다[22]. 자기효능감 변화 양상에 기초한 잠재계층에 따라 대인관계역량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성장모형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결측치 처리 방법은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으며, Mplus 8.3,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의 배경 정보

연구대상의 배경 정보를 1차(2016년) 자료를 토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 1,916명(65.2%), 여성 1,023명(34.8%), 학력은 고졸 이하 2,110명(71.8%), 대졸 이상 829명(28.2%), 장애정도는 중증 771명(26.2%), 경증 2,168명(73.8%), 연령은 25~29세 212명(7.2%), 30~39세 816명(27.8%), 40~49세 947명(32.2%), 50~59세 625명(21.3%), 60~64세 339명(11.5%)이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Category	N	%
Gender	Male	1,916	65.2
	Female	1,023	34.8
Education	Under high school graduated	2,110	71.8
	Above bachelor	829	28.2
Severity of disability	Significant	771	26.2
	Mild	2,168	73.8
Age	25~29	212	7.2
	30~39	816	27.8
	40~49	947	32.2
	50~59	625	21.3
	60~64	339	11.5

3.2 자기효능감 변화 양상

성인 장애인의 자기효능감 변화 양상을 설명하는 최적의 모형을 탐색하기 위해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차곡선변화모형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이차곡선변화모형은 신뢰로운 추정에 실패하여(non-positive definite)

Table 2. Information for model selection

Model	χ^2	df	CFI	TLI	RMSEA (90% C.I.)	SRMR	Mean	
							Intercept	Linear
No growth	74.680***	8	.987	.990	.053(.043-.065)	.024	2.754***	
Linear	11.809*	5	.999	.998	.022(.005-.038)	.008	2.716***	.021***

* p<.05, ** p<.01, *** p<.001

Table 3. Fit indices for unconditional growth mixture models

Model	AIC	BIC	SABIC	Entropy	LMR	LRT(p)	BLRT(p)	Class proportions(%)					
								1	2	3	4	5	6
2	17395.200	17449.072	17420.476	.898	.0000	.0000	.0000	79.4	20.6				
3	16385.335	16457.165	16419.036	.867	.0000	.0000	.0000	69.7	6.4	24.0			
4	16035.704	16125.492	16077.831	.792	.0000	.0000	.0000	20.5	11.9	62.0	5.6		
5	15906.178	16013.922	15956.730	.777	.0037	.0000	.0000	60.5	9.4	3.7	8.9	17.5	
6	15833.123	15958.826	15892.101	.774	.1802	.0000	.0000	5.0	12.6	10.1	3.5	60.3	8.4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비교하였다.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무변화모형보다는 선형변화모형이 자기효능감 변화 패턴을 더 타당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인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은 4년 동안 증가하는 패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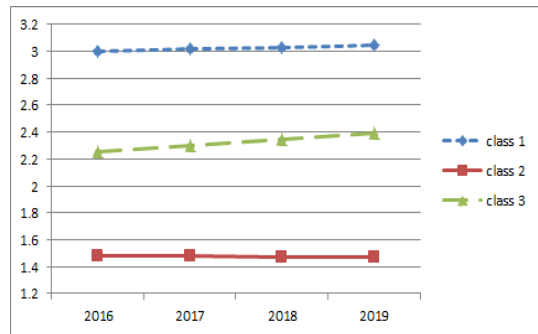
성장혼합모형에 기초하여 잠재계층이 2개인 모형부터 6개인 모형까지 비교를 통해 최적의 잠재계층 수를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지수, 모형 비교 검증, 분류율 및 분류의 질, 해석의 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3개 잠재계층으로 분류하여 설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개 잠재계층으로 분류된 모형의 평균 사후확률은 .897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첫 번째 잠재계층은 2,047명(69.7%)이 포함되었으며, 초깃값 3.001(p<.001), 선형변화율 .016(p<.001)이며, '상수준 증가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잠재계층은 188명(6.4%)이 포함되었으며, 초깃값 1.482(p<.001), 선형변화율 -.003(p>.05)이며, '하수준 무변화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잠재계층은 704명(24.0%)이 포함되었으며, 초깃값 2.258(p<.001), 선형변화율 .044(p<.001)이며, '중수준 증가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Table 4. Parameter estimates for latent classes

Latent classes	Estimate(S.E.)	
	Intercept	Linear
1	3.001(.011)***	.016(.004)***
2	1.482(.051)***	-.003(.019)
3	2.258(.029)***	.044(.010)***

* p<.05, ** p<.01, *** p<.001



※ Class 1: a 'high level-increasing group', Class 2: a 'low level-stable group', Class 3: an 'average level-increasing group'

Fig. 1. Profile plot of 3-class models

3.3 잠재계층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BCH 방법을 적용하여 확인된 3개 잠재계층에 따라 성인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3개 잠재계층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잠재계층 1(상수준 증가형 집단), 잠재계층 3(중수준 증가형 집단), 잠재계층 2(하수준 무변화형 집단) 순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잠재계층에 따른 대인관계역량 변화 양상

확인된 3개 잠재계층에 따라 대인관계역량의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선형성장모형 분석을 하였다.

Table 5. Comparisons (With the BCH Procedure) across the three-class profiles on life satisfaction

Variables	Latent classes	N	M	S.E.	χ^2
					(Significant pairwise comparisons)
Life satisfaction	Class 1	2,047	3.579	.013	419.532*** (2<3<1)
	Class 2	188	2.832	.055	
	Class 3	704	3.087	.026	

※ Class 1: a 'high level-increasing group', Class 2: a 'low level-stable group', Class 3: an 'average level-increasing group'
 * p<.05, ** p<.01, *** p<.001

Table 6에 제시한 것과 같이, 초깃값은 잠재계층1(상수준 증가형 집단), 잠재계층3(중수준 증가형 집단), 잠재계층2(하수준 무변화형 집단)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계층 1과 3은 대인관계역량의 선형변화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잠재계층 2는 대인관계역량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잠재계층1은 매년 평균적으로 .009 만큼 대인관계역량이 증가하며, 잠재계층 3은 매년 평균적으로 .015 만큼 대인관계역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Results of multiple group analysis

Parameter	Estimate		
	Class 1	Class 2	Class 3
Intercept	2.986***	1.746***	2.460***
Linear	.009*	-.016	.015*

* p<.05, ** p<.01, *** p<.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만 25세 이상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4년 동안의 자기효능감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자기효능감 변화 양상과 삶의 만족도, 대인관계역량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년 동안의 성인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은 향상되는 패턴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선형으로 변화하는 궤적에 기초했을 때 성인 장애인의 자기효능감 변화 양상은 3개의 특징을 갖는 잠재계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잠재계층인 상수준 증가형 집단(2,047명, 69.7%)은 4년 동안 계속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유지하는 특징이 있으며, 4년 동안 증가하는 패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 잠재계층인 하수준 무변화형 집단(188명, 6.4%)은 4년 동안 계속해서 가장 낮은 수준

의 자기효능감을 유지하는 특징이 있으며, 4년 동안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 번째 잠재계층인 중수준 증가형 집단(704명, 24.0%)은 4년 동안 계속해서 중간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유지하는 특징이 있으며, 4년 동안 증가하는 패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잠재계층의 특징은, 첫째, 자기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수준 증가형 집단과 중수준 증가형 집단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다.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하수준 무변화형 집단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기효능감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낮은 성인 장애인의 경우 적절한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 자기효능감의 변화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기효능감이 건강 관련 삶의 질뿐 아니라[23]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24], 자기효능감이 낮은 성인 장애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4년 동안의 장애인의 자기효능감 변화 양상에 기초한 3개 잠재계층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준 증가형 집단, 중수준 증가형 집단, 하수준 무변화형 집단 순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 간 밀접한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는 횡단 자료에 기초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6, 13-14]. 그리고 자기효능감의 증가는 삶의 만족도 증가와 연관된다는 종단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25]. 이는 자기효능감이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10, 26].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역경에 직면해도 도전적인 태도를 보이고 스트레스를 더 적게 받지만,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은 역경에 직면했을 때 역기능적 사고와 행동이 유발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1-2, 4, 8-9].

이와 같은 높은 자기효능감의 특성은 긍정적 삶의 경험을 강화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더 생산적이고, 안정적 심리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4년 동안의 성인 장애인의 자기효능감 변화 양상에 기초한 잠재계층에 따라 4년 동안의 대인관계역량 변화 패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준 증가형 집단, 중수준 증가형 집단은 대인관계역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하수준 무변화형 집단은 대인관계역량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대인관계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17].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역량을 친구를 얼마나 쉽게 사귀는지, 싸우지 않고 나의 의견을 잘 말할 수 있는지, 화를 조절할 수 있는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확인했는데, 이와 같은 특성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 특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자기효능감은 환경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기효능감은 인지, 동기, 정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동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하며,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의 수준, 문제적 행동의 자기조절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8].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두려워하지 않고[20], 다양한 도전 상황을 관리하고, 장애를 극복하는 특성이 있다[9]. 이와 같은 자기효능감의 특성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성인 장애인의 자기효능감 변화 양상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머신 러닝과 같은 기법을 활용하여 성인 장애인의 자기효능감 변화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같은 특수적 자기효능감이 어떻게 변화하고, 장애 청소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는 경험적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A. Bandura,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Vol.28, pp.117-148, 1993.
DOI: https://doi.org/10.1207/s15326985ep2802_3
- [2] A. Bandura, "Toward a psychology of human agency",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Vol.1, No.2, pp.164-180, 2006.
DOI: <https://doi.org/10.1111/j.1745-6916.2006.00011.x>
- [3] M. R. Yoon, Y. J. Nam, S. H. Hong, "A research of disabled employee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disability acceptance: The serial multiple mediation effect of job engagement and job satisfaction", *Disability & Employment*, Vol.29, No.2, pp.105-134.
DOI: <https://doi.org/10.15707/disem.2019.29.2.005>
- [4] A. Bandura,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Vol.37, No.2, pp.122-147, 1982.
DOI: <https://doi.org/10.1037/0003-066X.37.2.122>
- [5] K. R. Lorig, H. R. Holman, "Self-management education: History, definition, outcomes, and mechanisms",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Vol.26, pp.1-7, 2003.
DOI: https://doi.org/10.1207/S15324796ABM2601_01
- [6] Y. H. Nam, I. S. Chae, S. J. Lee, S. J. Lee, D. H. Chun, Y. S. Kim, "A study of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of those with disability owing to spinal cord injury : Focusing on mediatory effects of self-efficacy",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37, No.2, pp.1-22, 2011.
- [7] J. Y. Kim, "The effect of employment status and self-efficacy on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Disability & Employment*, Vol.30, No.1, pp.25-50, 2020.
DOI: <https://doi.org/10.15707/disem.2020.30.1.002>
- [8] A. Bandura, "On the functional properties of perceived self-efficacy revisited", *Journal of Management*, Vol.38, No.1, pp.9-44, 2012.
DOI: <https://doi.org/10.1177/0149206311410606>
- [9] A. Bandur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NY: Freeman, 1997.
- [10] G. K. Natvig, G. Albrektsen, U. Qvarnstrom, "Associations between psychosocial factors and happiness among school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Vol.9, No.3, pp.166-175, 2003.
DOI: <https://doi.org/10.1046/j.1440-172X.2003.00419.x>
- [11] M. Strobel, A. Tumasjan, M. Spörrle, "Be yourself, believe in yourself, and be happy: Self-efficacy as a mediator between personality factors and subjective well-being",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Vol.52, No.1, pp.43-48, 2011.
- [12] A. Bandura, "Social cognitive theory: An agentic perspectiv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2, No.1, pp.21-41, 1999.
- [1] A. Bandura,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 DOI: <https://doi.org/10.1111/1467-839X.00024>
- [13] G. S. Yoo, "The influence of leisure activity participation on life satisfaction of wage earner with disabilities: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Care Management*, Vol.32, pp.33-51, 2019.
DOI: <http://dx.doi.org/10.22589/kaocm.2019.32.3>
- [14] J. Y. Song,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n life satisfaction of workers that have returned to their original workplace after industrial medical care: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Disability & Employment*, Vol.26, No.3, pp.65-94, 2016.
DOI: <https://doi.org/10.15707/disem.2016.26.3.003>
- [15] E. Grasaas, S. Helseth, L. Fegran, J. Stinson, M. Småstuen, K. Haraldsta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adolescents with persistent pain and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A cross-sectional study", *Health and Quality of Life Outcomes*, Vol.18, No.1, 19, 2020.
DOI: <https://doi.org/10.1186/s12955-020-1273-z>
- [16] S. Omran, S. Mcmillan, "Symptom severity, anxiety, depression, self-efficacy an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cancer",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Vol.19, No.2, pp.365-374, 2018.
DOI: <https://doi.org/10.22034/APJCP.2018.19.2.365>
- [17] S. H. Roh, Y. G. Kim, "The effects of self-efficacy on job awareness of disabled youth: Focused on interpersonal competence", *Studies on Korean Youth Activity*, Vol.6, No.3, pp.29-50, 2020.
- [18] S. Yulikhah, B. Bukhori, A. Murtadho, "Self concept, self efficacy,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effectiveness of student", *Psikohumaniora: Jurnal Penelitian Psikologi*, Vol.4, No.1, pp.65-76, 2019.
DOI: <http://dx.doi.org/10.21580/pipp.v4i1.3196>
- [19] R. Matsushima, K. Shiomi, "Social self-efficacy and interpersonal stress in adolescence",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Vol.31, No.4, pp.323-332, 2003.
- [20] I. S. Lee, J. B. Yoo, "An effect of adult learners'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fficacy on interperson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Vol.8, No.1, pp.1-21, 2012.
- [21] <https://edi.kead.or.kr/Contents.do?cmd= 051A&mid=213>
- [22] T. Asparouhov, B. Muthén,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Vol.21, No.3, pp.329-341, 2014.
DOI: <https://doi.org/10.1080/10705511.2014.915181>
- [23] M. Peters, C. M. Potter, L. Kelly, R. Fitzpatrick, "Self-efficacy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 cross-sectional study of primary care patients with multi-morbidity", *Health and Quality of Life Outcomes*, Vol.17, 37, 2019.
DOI: <https://doi.org/10.1186/s12955-019-1103-3>
- [24] T. Kershaw, K. R. Ellis, H. Yoon, A. Schafenacker, M. Katapodi, L. Northouse, "The interdependence of advanced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y caregivers' mental health, physical health, and self-efficacy over time",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Vol.49, No.6, pp.901-911, 2015.
DOI: <https://doi.org/10.1007/s12160-015-9743-y>
- [25] K. Burger, R. Samuel, "The role of perceived stress and self-efficacy in young people's life Satisfaction: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46, No.1, pp.78-90, 2017.
- [26] C. Liu, Y. Cheng, A. S. C. Hsu, C. Chen, J. Liu, G. Yu, "Optimism and self-efficacy mediate the association between shy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Chinese working adults", *PLoS ONE*, Vol.13, No.4, e0194559, 2018.
DOI: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94559>
- [27] Y. M. Lee, R. Schwarzer, M. Jerusalem, "Korean adaptation of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 1994, Retrieved from <http://userpage.fu-berlin.de/~health/korean.htm>.
- [28] C. Grimmett, J. Haviland, J. Winter, L. Calman, A. Din, A. Richardson, P. Smith, C. Foster, "Colorectal cancer patient's self-efficacy for managing illness-related problems in the first 2 years after diagnosis, results from the ColoREctal well-being (CREW) study", *Journal of Cancer Survivorship*, Vol.11, No.5, pp.634-642, 2017.
DOI: <https://doi.org/10.1007/s11764-017-0636-x>

연 은 모(Eun Mo Yeon)

[정회원]



- 2007년 5월 : 버지니아 주립대 (Univ. of Virginia) 국제관계학 학사
- 2009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방법 석사)
- 2014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진로상담, 실수기반학습, 학습동기

최 효 식(Hyo-Sik Choi)

[정회원]



- 2006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석사)
- 2013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춘천교육대
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심리검사, 학습전략, 부모-자녀 관계